

개도국 해양 지원 '여수프로젝트' 발전시킨다

해수부·전남도·여수시, 오늘 운영방안 간담회

박람회 사추위 → 여수선언 실천위로 변경 논의

해수부·전남도·여수시, 오늘 운영방안 간담회

해수부·전남도·여수시, 오늘 운영방안 간담회

해수부·전남도·여수시, 오늘 운영방안 간담회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 등은 2014년부터 ▲여수국제아카데미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프로그램 실시 ▲여수국제해양포럼(격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모아의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 베트남의 '석장의 연안생태계 및 수질조사·분석', 방글라데시 세계자연유산 '순다르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사업'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관리능력 개발' 등의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국제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페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0여개국에서 130여명의 국제해양 분야의 핵심인재를 배출했으며, 지난해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문이 채택되는 결실을 맺었다.

또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프로그램(SOD) 부문에서도 해양보전분야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관련 결정문이 채택됐다. 올해 6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주관 국제해양콘퍼런스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연구 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진행한 '필리핀 해양보호구역 관리·실행사업'은 현지 주민과 함께 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감시선과 경계부표 등 관리시설을 지원, 현지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 등을 받았다.

또 인도네시아의 연안범람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인도네시아 연안통합관리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개최된 제1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에서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연구센터 설립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9월 열리는 간담회에서 해수부와 전남도, 여수시 등 관련 지자체들은 향후 여수프로젝트 확대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박람회 사추위를 추진위원회(사추위)를 '여수선언 실천위원회(7기정)'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국비확보 '시동'

147건 대상... 신규사업 3208억

전남도는 8일 국고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국비확보를 건의할 신규사업에 대해 2018년 국비 확보에 나섰다.

대상 사업은 모두 147건으로, 전남도 구상대로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 들어갈 총 예상 사업비는 38조원이다. 전남도는 일단 내년 건의 대상 신규 사업 규모를 3208억원 정도로 잠정 집계하고 단계별 논의를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제주·남해안·수도권을 연결하는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군산~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 농림·해양, 경제, 안전 분야에서는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도 신규사업에 넣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스마트화, 초소형 전기차 이용자 중심 서비스 실증사업, 응급 의료전용헬기 착륙장 확충 사업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오는 24일 신규·계속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열고 3월부터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지원 논의를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선 포기' 반 전 총장

소록도 조용히 다녀가

최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고흥 소록도병원에 다녀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소록도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반 전 총장과 유순택 여사, 수행원 등이 병원을 방문했다.

반 전 총장 일행은 4시간여 동안 머무르며 병원 시설과 한센인 숙소 등을 둘러본 뒤 병원 관계자와 환자,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반 전 총장은 비명령을 이유로 외부에 일체 방문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소록도 근황 등에 대해서만 물어봤을 뿐 정치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방명록에 "한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위한 동행, 국립소록도병원 여러분들의 숭고한 바에정신을 높이 치하드립니다"라고 썼다.

방명록에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쓴 반 전 총장은 소록도병원 방문 후 별다른 추가 일정 없이 소록도 방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의 소록도 방문은 인터넷 동호회 사설 게시판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한편 반 전 총장은 9일 딸 내외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함께 케냐로 출국한다. 반 전 총장의 차녀 현희씨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케냐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며, 사위인 스티브 채터지씨는 유엔 케냐 사무소 상주 조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연합뉴스



소록도 병원 둘러 본 반 전 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일 고흥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소록도병원 제공)

광주시, 교통사고 잦은 121곳 교통안전환경 개선

21억 투입 상반기 완료

광주지역의 교통사고 잦은 곳 등 121곳의 교통안전 환경이 개선된다.

광주시는 8일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시비 21억원을 투입해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은 ▲교통사고 잦은 곳 18곳

▲회전차로 1곳 ▲어린이보호구역 34곳 ▲도심일방통행로 확대 28곳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10곳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30곳 등 총 121곳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개선사

업 중 교통사고 잦은 곳 11곳에 대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24.5%, 인명피해 2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운전자와 보행자,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조성돼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잘못된 토지 경계 바로잡는다

목포 울도1지구 등 22곳

전남도, 지적제조사 사업

전남도는 올해 목포 울도동 울도1지구 등 전남지역 22개 지구 1만4284필지(1284만9000㎡)의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제조사사업을 벌인다.

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총 71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지구를 마무리했으며, 2016년 사업지구인 목포시 울도동 금수동지구 등 24개 사업지구는 올해 9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제조사사업은 지난 1910년 제작된 '도면'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적대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 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상담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 www.emsolar.kr